



정찬주 다큐소설



〈삽화 이정기〉

<28> 5월 25일 '신부님의 눈물'

도청을 중심으로 화정동, 농성동, 광천동, 동운동, 계림동, 산수동, 학운동, 지원동 등은 광주 외곽 동네였다. 조비오 신부는 무기회수반 차를 타고 외곽 지역을 돌았다. 지역을 방어하는 시민군이 있을 때는 차를 멀찌감치 세워놓고 걸어가다. 캄캄한 밤 중에는 오인사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조비오 신부를 안내하고 있던 무기회수반 시민군이 말했다.

“신부님, 자정이 넘어부렀습니다. 인자 성당으로 돌아가서 주무시지라유.”

“계엄군이 다시 진입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어찌해 잠을 잘 수 있겠는가. 회수하는 데까지 심정해보세.”

“잘하든 4천 자루는 회수할 거 같습니다.”

“그거밖에 안되는가?”

어제까지 회수된 총기가 3500여 정이니 오늘까지 5백 정을 채우면 일단 목표는 달성할 것 같다는 시민군의 대답이었다.

“나는 발이 붓고 물집이 생겨 서 있기도 힘이 드네.”

“인자 우리들에게 맴고 들어가시지라유.”

“시민들이 또 희생당할 판이라 맘이 조매조매하네.”

무기회수반 차는 고속도로 입구에서 바로 산수동 오거리로 갔다. 교도소와 고속도로입구 쪽에 있는 시민군들을 설득하여 총기를 회수하고 가는 길이었다. 조비오 신부는 무기회수반 차를 한쪽에 세우게 한 뒤 웅성거리고 있는 산수동 시민군에게 다가갔다. 불미스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므로 수습위원 일행은 차에 남고 무기회수반 시민군이 조 신부를 양쪽에서 호위했다. 예상했던 대로 거친 말이 날아왔다. 시민군이 총을 들이대며 소리쳤다.

“이 새끼들은 뭐야!”

“신부님이요.”

“뿔하러 왔소?”

“총기를 회수하러 왔소.”

총을 들이대던 시민군이 총구를 내리며 물었다.

“죽은 우리 선후배, 친구들 목숨의 대가를 어찌해 보상할라고 그러요?”

조비오 신부가 나직하게 말했다.

“무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계엄당국과 협상하고 있네. 이라는 우리도 슬프고 분통터지기는 자네들 심정과 마찬가지로네. 계엄군이 또 쳐들어올지 모르

조비오 신부가 나직하게 말했다.

“무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계엄당국과 협상하고 있네.

이러는 우리도 슬프고 분통터지기는 자네들 심정과 마찬가지로네.

계엄군이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시민의 희생을 막을라든 이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억울해도 으짖겠는가.”

는데 시민의 희생을 막을라든 이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억울해도 으짖겠는가.”

조비오 신부는 번두리의 시민군을 만날 때마다 했던 말을 또 되풀이했다. 그러나 산수동 시민군은 물러서지 않았다.

“신부님, 고로코름 목숨이 아깝습니까?”

“내 목숨이 아깝다는 말이 아니네.”

“선후배들이 죽었는디 우리만 살아서 뿔하겠습니까?”

조비오 신부는 선후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시민군이 대견했다. 그러나 계엄군의 살상만행을 생각하자 속에서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아 눈물이 나왔다. 일행 중에 이종기 변호사가 향변하는 시민군의 등을 두드려주었다. 그러자 그가 어제 저녁부터 식량보급차가 오지 않는다고 투덜거렸다.

“식량보급차가 안 와서 짬뽕 굶고 있그만이라유.”

“도청으로 가서 보내도록 하겠네.”

이윽고 산수동 시민군들이 소총 열댓 자루를 넘겨주었다. 조비오 신부 일행은 동명동 지름길을 이용해 도청에 들어가서 급히 빵과 우유를 싣고 다시 외곽 번두리 쪽으로 돌아왔다. 계엄군에게 사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헤드라이트를 끈 채 달렸다. 새벽 3시가 지나서까지 남재희 신부, 장세균 목사, 이종기 변호사가 함께 했다. 시민군들의 호응은 어디서나 차가웠다. 무등경기장 부근에서는 지역방어 시민군

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시민군이 총기회수를 설득하는 수습위원들의 자격을 따졌다.

“당신들은 누구요?”

“우리는 시민대표 수습위원이네.”

“시민대표라고 누가 인정했소?”

“계엄당국과 협상할라든 대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총을 반납하든 영령들 피의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소?”

“아직은 모르네.”

“광주시민 피의 대가를 받기 전에는 무기를 내놓을 수 없소.”

시민군의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었다. ‘보장’과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했다. 오히려 확실한 ‘보장’과 ‘대가’ 없이 시민군을 설득하고 있는 조비오 신부는 부끄럽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물러설 수도 없었다. 계엄군이 무력진압을 강행할 분위기인데 총기회수가 늦어지면 총정과 정열로 총을 든 시민군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피해가 너무도 클 것이기 때문이었다. 조비오 신부는 논리적인 말보다 감성적으로 호소했다.

“우리는 목사이고 신부네, 우리도 죽음을 무릅쓰고 부모 같은 마음으로 나섰다는 것을 알아주게. 오로지 광주시민의 희생을 줄이고자 이러는 것이네. 제발 우리를 믿어주시게.”

이윽고 시민군끼리 찬반 토론을 벌이더니 몇 명이 총기를 반납했다. 조비오 신부 일행은 태운 소형 버스는 또 다시 국군통합병원 쪽으로 달렸다. 계엄군 장갑차가 보이는 대치지역으로 시민군 독립부대가 있는 곳이었다. 시민군 소대장은 예비군 출신이었고 시민군들은 대부분 십대 후반의 녀마주이나 구두땀이 청년, 고아들이었다. 시민군들은 버스 1대를 엄폐물로 삼아 방어하고 있었다. 어린 시민군이 조비오 신부 일행을 보자 비아냥거렸다.

“또 왔소? 배고픈게 빵이나 좀 주쇼.”

빵과 우유를 박스째 내려준 뒤 조비오 신부가 말했다.

“대부분 총기를 반납했네. 여기 시민군만 반납하면 우리가 자신 있게 협상할 수 있네.”

평소에 소외받고 살았던 어린 시민군이 더욱 단호했다.

“우리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유. 무기반납은 절대로 못합니다유. 수습이 되면 우리는 끌려가 죽을지 모른당께요.”

“죽기는 왜 죽어. 협상은 으째서 허겠는가. 보복하지 말라고 협상하는 것이제.”

“궤기대회에서 들었는디 계엄군이 수습위원을 가지고 논다고 허대유. 공계 어용 수습위원이라는 소리를 듣지라.”

조비오 신부는 화가 치밀었다.

“시민의 재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전념했는디 무슨 어용이란 말인가.”

“진전이 없으께 도는 말이겠지라.”

“총을 주든 보복하지 않는다고라?”

시민군의 단호한 태도 뒤에는 불안함도 숨어 있었다. 조비오 신부는 어린 시민군들의 마음을 다독였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세.”

조비오 신부와 수습위원 일행이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통사정했다. 일행 중에 우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자 시민군 소대장이 결론을 내렸다.

“도청으로 철수허되 총기반납은 하지 않겠소.”

어느 새 무등산 쪽 하늘에 먼뭉치가 트고 있었다. 수습위원 일행은 외곽지역을 두세 번씩 돌아다니며 밤을 새워버린 셈이었다. 조비오 신부는 서 있기도 힘들었다. 발등이 통통 부어 걸기가 고통스러웠다. 발가락에 물집이 생겨 비늘로 꼭꼭 찌르듯 아팠다.

“날씨가 쌀쌀하니 돈을 모아 시민군들에게 내의라도 사줍시다.”

윤영규 선생이 모자를 벗었다. 그러자 시민수습위원들이 먼저 지갑을 열었다. 학생수습위원들도 호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모자에 넣었다. 이른 새벽에 갑자기 모금했기 때문에 걸린 돈은 많지

않았다. 윤영규 선생은 시민군 소대장에게 돈을 건네주고 나서 시민군들을 데리고 민원실 식당으로 갔다. 여성 자원봉사대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시민군들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을 날랐다. 김치와 멸치조림, 갈치숙젓은 이미 식탁에 놓여 있었다. 시민군들은 계걸스럽게 먹어치웠다.

“따뜻한 국밥이라서 눈물이 나부네.”

굶주렸던 배를 채운 시민군들은 갑자기 유순해졌다. 절대로 반납하지 않겠다고 총을 도청 정문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내놓았다. 일부는 학생이 많은 도청에 있기가 거북한 듯 정문을 빠져나갔다.

“공원으로 가볼라유.”

나머지 70여 명은 도청 경비로 남았다. 조비오 신부는 3일 동안 번두리를 돌면서 4천여 정의를 회수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다. 회수한 총으로 연행자를 석방하고 계엄군의 재진입을 막고, 광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협상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졌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철없는 대학생들 만나 한숨이 터져 나왔다. 대학생은 미군함에 신군부를 견제하고 광주시민을 돕고자 부산항에 입항할 것이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들고 있었다.

“신부님, 미군함 코럴시호가 온답니다.”

“그래서 으짖는 건가?”

“미군이 오면 신군부가 맘대로 못하겠지요.”

“정신 나간 소리 말게. 미군이 오면 군부를 지원하지, 시민을 지원하겠는가? 쓰잘데기없는 것에 희망을 걸면 안 되네.”

옆에 있던 시민군이 또 시비를 걸듯 말했다.

“궤기대회에서 들었는디 계엄군이 수습위원을 가지고 논다고 허대유. 공계 어용 수습위원이라는 소리를 듣지라.”

조비오 신부는 화가 치밀었다.

“내가 어용이란 어느 놈을 위한 어용인가? 말해보게!”

“계엄사를 위한다는 말은 안 했그만요.”

조비오 신부가 소리치자 시민군이 입을 다물었다.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전념했는디 무슨 어용이란 말인가.”

“진전이 없으께 대답해서 도는 말이겠지라.”

시민군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리자 그제야 어젯밤에 새로 학생수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 황금선이 무슨 사고가 난 줄 알고 쫓아왔다.

“신부님, 싸가지없는 놈들 뺨치 죄송하그만요.”

〈계속〉